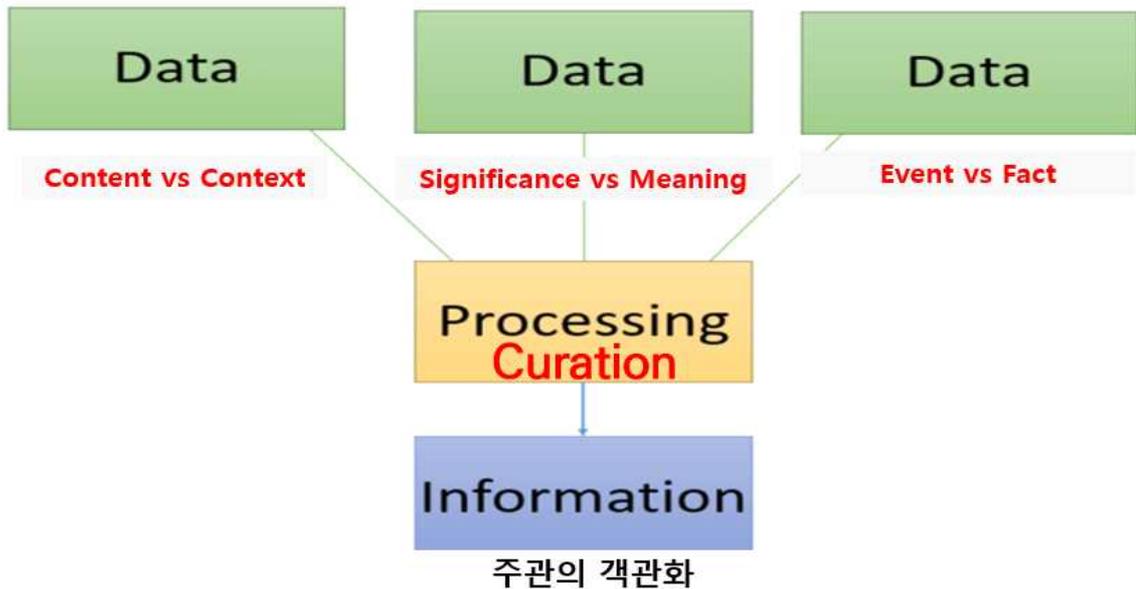


## Phase II 컨텍스트 기반 의미 해석 Understanding

일상 속에서 찾아낸 수많은 사실과 콘텐츠 자체는 재료일 뿐, 이를 큐레이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변화를 참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매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공급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보고, 그 해석을 나의 해석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큐레이터라면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프레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프레임(frame)의 사전적 의미는 틀 혹은 테두리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미국의 인지 언어 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 이론’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98% 대부분이 생각 없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즉, 일종의 세상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프레임이 형성되면 사람들 대부분 무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큐레이션 해석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사고를 멀리해야만

한다.

케빈 카터 사진작가의 '독수리와 소녀'는 프레임에 얽매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1993년 남수단 한 마을을 방문한 케빈 카터는 독수리 앞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깡마르고 굼주린 흑인 소녀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작가인 카터는 유명인이 되었고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어째서 소녀를 구하지 않았냐며 카터를 질타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독수리가 소녀를 잡아먹었다는 식의 논쟁이 미국 주간지에 실리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고 말았다.

당시 현장의 상황은 사람들의 논쟁과 전혀 달랐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게릴라 출몰지역으로 취재진 접근이 통제된 곳이었다. 그래서 카터는 주어진 30분 안에 여러 장면을 찍어야만 했다. 그는 사진 촬영 후 독수리를 쫓아냈고, 이후 소녀는 유엔에서 지원하는 식량을 받아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독수리는 결코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은 망각한 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내용과 믿고 싶은 내용만을 신봉한다. 카터의 자살은 소녀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실과 달리**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비난 여론이 원인이었다.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닌 여론이 케빈 카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처럼 때론 프레임사고는 진실과 동떨어진 그릇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고 잘못된 오해는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



The vulture and the little girl / Hevin C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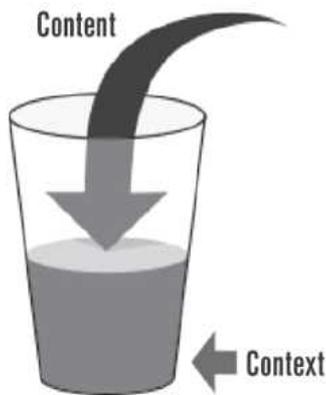
### 사실과 사건을 분리해서 주변 상황을 보는 컨텍스트 사고가 필요

큐레이터는 해석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프레임 사고에서 벗어나 주변 상황의 맥락 속에서 콘텐츠를 바라봄으로써 본질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콘텐츠를 둘러싼 외부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전후 관계 및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등 맥락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 콘텐츠 content vs 컨텍스트 context

컨텍스트(context)란 시공간을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련의 사회, 문화, 자연적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일컫는다**. 콘텐츠의 특성을 정의하는 모든 정보를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컨텍스트가 가리키는 대상은 사람, 장소, 문서 등 모든 단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콘텐츠가 물이라면, 컨텍스트는 그 물과 관련된 대상, 먹는 장소, 시간, 목적 등을 의미한다. 물이 컵에 담겨있고 누군가 그 물을 마신다면 '해갈'이라는 컨텍스트가 나온다. 아침에 차가운 얼음물이라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이가 시릴 것이라는 컨텍스트도 나올 수 있다. 콘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둘러싼 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컨텍스트 파악은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 본질 파악을 위해서는 사용자 **Human** 관점에서 해석

그동안 콘텐츠를 경제적 관점, 산업 관점에서 인식하면서부터 콘텐츠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다. 컨텍스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열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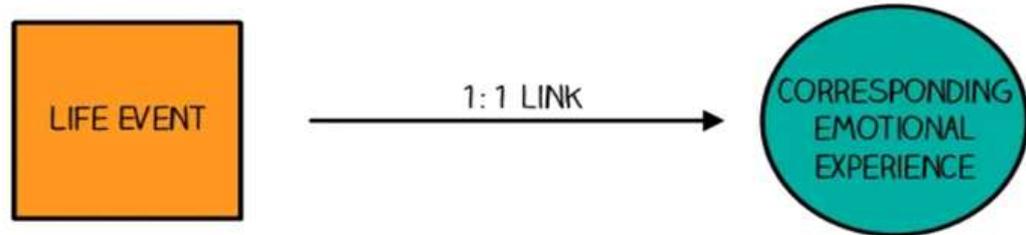
콘텐츠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 context 안에서 관찰하는 방법 습득. 즉 대상으로써 콘텐츠 자체와 콘텐츠를 사용하는 '**Human**'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를 '작품'으로만 보지 않고 상호작용을 위한 '거리'이자 '매개체'로 바라보는 것이 본질적인 해석의 출발점이다.

미술작품 역시 우리가 바라본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내면성과 다양한 관련성을 맺으며 완성되는 관계적인 행위의 연장이다. 미술작품은 그것이 묘사한 그림 속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의식을 전제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스토리'인 것이다. 바라보는 사람이 그림을 포착하여 완성하며 공감할 때 그림의 표정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sup>1)</sup>

1) <https://brunch.co.kr/@artnsoul/13>

## HOW MANY PEOPLE CHARACTERIZE THEIR EXPERIENCES



<https://mindfulambition.net/power-of-perception/>

사진도 마찬가지다. 케빈 카터가 찍은 ‘독수리와 소녀’는 남수단의 기아현실을 담은 것이다. 사진에 대한 해석은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및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콘텐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라면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앞서 말한 프레임적 사고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단지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콘텐츠 스타일(the physical aspects of the artwork)적 해석을 통해서 일차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큐레이터 해석은 창작자 시각(the context in the artwork itself),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본질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가 작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 / ©백상훈